

"조생통일"은 24℃에서 "수원 264호"는 23℃에서 정점을 보였고 22℃ 이상되어야 10a 당 500kg이상의 수량을 얻을 수 있었다.

4) 품종별 등숙적온과 출수일수와의 교차점을 찾아 안전 다수할 수 있는 작기 추정의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11. 수도 초형의 유전에 관한 연구

(작물시험장) 곽태순, 김중호, 정근식, 최현욱

1966년 이전에는 도복과 수량과의 관계를 검토하려는 것이 막연한 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IRRI에서 IR8을 육성하므로써 도복지수와 수량성을 양립시키기 시작했다. 품종면에서 전전한 생육을 유지하면서 광합성 능력이 높은 초형이 요구된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립이고 단간의 초형이 요구된다.

허등, Aquino 등, Chang, Jodon들은 단간이 단순 열성 유전인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고한바 있다. Chang은 각 단간종이 각기 1개의 단순열성인자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이들 열성인자들은 상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수도 초기생육에서 Stunting 현상의 유전양식이 불분명하여 이 유전양식을 규명하여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코자 수행하였든바 초장 및 단장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초월우성을 보인 이리 330×수원 232호 조합은 다같이 장초장, 장간쪽으로 움직였고 초장에서는 단초장이

우성이었던 현상이 간장에서는 장간이 우성방향으로 변하는 조생 통일 X 수원 232 호 조합에서는 억제 인자를 수원 232 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시한 대부분의 조합이 간장에서 보담도 초장에서 우성의 정도가 둔한 편이었다.

12. 수도 내냉성에 관한 연구

I. 장기 냉수처리에 의한 내냉성 품종 선발과 품종별 냉수 반응차이에 관하여

(작물시험장) 최현옥, 김종호, 최해춘, 안종국

국내 육성품종, 재래종 및 도입품종 등 1,080 품종을 1977년 춘천내냉성검정포에 4월 25일 파종, 6월 5일에 이앙하여 이앙후 10일경부터 $17^{\circ}\text{C} \pm 1^{\circ}\text{C}$ 의 냉수를 만생종의 출수기까지 장기처리하여 품종별 냉수반응의 차이와 입실률을 중심으로 선발된 내냉성품종들의 특성 및 이들 형질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실률을 중심으로 선발된 내냉성품종은 도입품종 50, 한국재래도 20, 국내육성종 1 품종 등 총 71 품종으로 한국새래품종 중에서 다수의 내냉성품종이 선발되었으며, 도입품종 중에서는 일본, 동남아 열대지역의 고냉지품종과 이들과 교잡육성된 남방계 품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내냉성 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모본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품종들로서는 반달며, 구중도, 강원도,